

# ‘네가 나의 부처, 내가 너의 부처’ 깨닫는게 수행



## 화엄사상 무엇을 말하나

금강선원 선원장 헤거 스님

화엄은 불교의 핵심사상입니다. 불교가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이유는 화엄경 때문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열반 후 800년이 지나 편찬된 경전입니다. 부처님은 성불하신 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전 인도는 ‘신의 천국’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을 모시다 유일신으로 통일됐습니다. 그 유일신이 바라문신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바라문교에서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바라문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수행을 마쳐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행을 다 마쳐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로 선정(禪定)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은 신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업에 의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업의 주체는 바로 마음입니다. 세상의 창조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인간은 신에게서 해방됐습니다.

3000년 전 인도를 비롯해 모든 나라는 신에 의해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천자(天子)라 불렀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에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함부로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상나라시대 마지막 왕인 주왕은 폭군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주왕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무왕이었습니다. 무왕은 문왕의 아들입니다. 문왕은 임금에게 항상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투기한 주왕은 문왕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졌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문왕의 셋째아들 무왕은 강태공과 함께 주왕을 공격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왕이 왕을 공격해 왕의 자리에 오르자 크게 걱정했습니다. 신이었던 왕을 공격해 나라가 몰락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왕이 왕위에 오른 뒤 나라는 더 번창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0~500년 뒤, 주나라 시대에 공자가 등장하면서 완전한 인본주의 사상이 대두됐습니다.

## 업에 의해 태어나고 죽으니

세상의 창조자는 바로 나

화엄경 핵심 ‘마음·보살사상’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보살의 길

한나라시대 한무제는 인본주의 사상을 다시 신본주의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인본주의사상이 지속되면 누군가 자신을 공격해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음양오행설’입니다. 사주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구분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주에 왕의 사주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왕의 사주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사주를 보면 대통령, 재벌사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정주영 회장 등과 한날·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까요. 이처럼 팔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라

는 것은 모두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일체유심조 사상과 더불어 보살사상이 핵심입니다. 화엄경이 부처님 열반 8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은 제자들이 너무 수행에만 몰두해 자신의 경지를 즐기기에 바빠, 다른 이들의 고통은 두루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불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화엄경이 등장하면서 불교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전환됐습니다.

화엄경에는 관세음보살·문수보살·지장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이 보살들은 중생을 위해 대자비심을 일으켜 성불하시는 분들입니다. 즉, 자신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화엄경은 보살의 핵심경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수행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자비를 성취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탐닉하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리살타는 위로는 부처님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보살이 돼서 중생을 구하고 보살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이 수행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살은 ‘상구보리화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진리 아닌 것을 행하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보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업을 알아채,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진년에는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불교진흥원 신년대법회

화엄사상-자연생태와 사회생태의 둘 아닌 조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1월 30일~2월 3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2012년 임진년 신년대법회’를 열었다. 행사는 ‘조화로운 대우주 자연의 세계, 자연생태와 사회생태의 둘 아닌 조화’를 주제로 우리시대 선지식 5인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첫 법회는 1월 30일 금강선원 선원장 헤거 스님이 ‘화엄사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로 법문했다. 1월 31일에는 인드라망 공동대표 도법 스님이 ‘화엄 속 통섭의 미학(너와 나의 대립을 넘어)’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들은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화엄사상을 통한 삶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해결법을 제시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 화엄속 통섭의 미학

인드라망 공동대표 도법 스님

불교에서는 언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불자들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언어만 제대로 다뤄도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근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 치면, 그 중 60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 땅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대개 뱀을 상상할 겁니다. 이어 ‘그 뱀이 나를 물지는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몽둥이·칼·총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작용이 세상에 핵무기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뱀이 아닌 새끼줄임을 확인하면 공포는 사라집니다. 공포를 해소하는 일은 염불을 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삶의 과학입니다. 사실만 제대로 확인해도 인생의 100근의 짐 중 60근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처럼 단순·명쾌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모두 이해하고, 바로 이를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교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했다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맞고 틀린지에 대해 검증해야 합니다. 불교가 심오해서 검증할 수 없다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뤄져 있고, 어떤 경지인가, 어떻게 살아야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의 생명입니다. 국가·민족·종교·사랑·꿈 등 모든 것은 내 생명을 떠나서는 이를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나의 본래면목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길을 제대로 알고가야지, 열심히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흔히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재를 들여다보면 생명이 모두 하나입니다.

## 우주는 하나의 그물 인드라망

‘혼자도 잘 살 수 있다’ 전도몽상

도독질하면 감옥 갈 걱정하듯

지금 제대로 살면 후생 걱정 없어

태양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이웃이 없는 사회에서도 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드라망 세계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의 그물로 엮여져 있습니다. 낱알의 존재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존재합니다. 현대인들은 너 없이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는 전도몽상을 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낳은 것은 자식입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 연기적 사유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중 주인은 따로 없습니다. 모두 다 그물코입니다. 이런 이치로 보면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억울한 생각만 거뒀내도 인생을 훨씬 즐기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도독질을 한다면 내일은 감옥에 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만 살면 후생의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를 부처님처럼 대하면 인생은 화목하고 평화로워 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참선입니다. 내가 곧 우주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섯 가지로 규정됩니다.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완성된 존재 >가장 주체적인 존재 >가장 창조적인 존재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본래 부처라 말합니다.

부처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발은 땅을 딛고 있고, 두 눈은 옆으로 찢어지고, 코는 수직으로 곧게 향해있습니다. 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부처님도 졸음이 오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부처는 따로 없습니다. 존재자체가 부처입니다.

우리에게는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입니다. 부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자비마음으로 항상 모든 일을 고마워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면 삶이 편하고 윤택해 집니다. 이것이 해탈의 삶, 열반의 삶입니다.

내 인생을 내 의도대로 창조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생각이 나 말, 글로서만 훑다나면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주고받으며 내가 나의 부처이고, 내가 너의 부처임을 모두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불교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 “깊은 산속 바위틈에서 떨어지는 약수와 같은 글들!”

이 책이 나에게 이런 편안함을 줄 줄이야... 읽는 내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 독자 최홍근(happy\_0801)



월스트리트저널이 극찬한 '영혼의 멘토!' '차세대 리더 300인'으로 선정된 헤민스님의 인생 집언!

## 멤버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베스트셀러 1위 (매일 1분이)

헤민 저 | 우정현 그림 | 값 14,000원

“이 책에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헤민 스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필독을 강추합니다.” -이외수, 작가

관계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생과 희망에 대해... '영혼의 멘토, 청춘의 도반' 헤민 스님의 마음 매뉴얼! 하버드 재학 중 출가하여 승려이자 미국 대학교수라는 특별한 인생을 사는 헤민 스님. 트위터에 올린 성찰과 위안이 담긴 글들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러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수십만 트위터러인들이 먼저 읽고 감동한 헤민 스님의 인생 집언! 마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한침의 보약이, 꽉 막힌 듯 가슴이 답답한 이들에게 한알의 소화제가 되어줄 것이다!

헤민 스님 트위터 2030 멘토 헤민 스님. '혼자서 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함께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트위터로 현재 한국 종교인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지녔다.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